

**미국 뉴욕시장선거,
시애틀시장선거를 통해 본
진보정책 동향**

2026. 1.

**미국 뉴욕시장선거,
시애틀시장선거를 통해 본
진보정책 동향**

2026. 1.

장석준 배곧 산현재 기획위원

본 연구보고서는 노회찬재단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결과입니다.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노회찬재단의 공식적인 입장을 아님을 밝힙니다.

<목차>

1. 들어가며 --- 2
2. 미국의 조건에서 주류 정치에 도전한 맘다니와 월슨 --- 4
 - 1) 뉴욕 : 민주당 주류 대 DSA --- 4
 - 2) 시애틀 : 돌풍의 진원, Transit Riders Union --- 5
3. 맘다니와 월슨의 정책 지향 : 서민이 ‘감당할만한’ 도시 생활을 향하여 --- 8
 - 1) 맘다니의 주요 정책 --- 8
 - 2) 월슨의 주요 정책 --- 10
4. 한국 사회에 던지는 함의 --- 13
5. [자료] 조란 맘다니의 뉴욕시장선거 공약 --- 15
6. [자료] 케이티 월슨의 시애틀시장선거 공약 --- 24
- 참고문헌 --- 37

1. 들어가며

11월에 미국의 일부 주, 시에서 실시된 지방선거는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로 나선 **조란 맘다니**Zohran Mamdani로 인해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다. 맘다니는 ‘민주사회주의자’라 자처하는 젊은 정치가(1991년생)이며, 부모가 인도인이고 우간다에서 출생했으며 종교가 이슬람 시아파인 이민자다. 그런 인물이 금융자본주의의 심장부인 뉴욕에서, 그것도 극우 성향의 제2기 트럼프 정부 아래에서 당선 유력 후보로 떠올랐으니, 눈길을 끌만도 했다. 11월 4일, 맘다니 후보는 약 111만 표, 50.78%를 획득하며 뉴욕시장에 당선됐다. 투표율이 20%에 머물던 이전 선거들과는 달리 이번에는 투표율이 43.47%로 2배 정도 늘어났는데, 50%가 넘는 지지를 받은 것이다. 맘다니 후보 지지 열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만하다.

이후 며칠 동안 맘다니 당선자를 다룬 기사가 전 세계 언론 지면을 장식했다. 가히 ‘맘다니 돌풍’이라 할 만했다. 그러나 뉴욕시장 선거와 같은 날 실시된 미국 다른 곳의 선거 결과가 알려지면서, 맘다니 현상이 좀 더 큰 흐름의 일부임이 분명해졌다. 뉴욕의 정반대편인 서해안의 또 다른 주요 도시 **시애틀**에서도 시장선거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시민운동가 출신인 **케이티 윌슨**Katie Wilson(1982년생)이 50.20%를 얻으며 시장에 당선됐다. 그런데 윌슨 역시 맘다니처럼 ‘민주사회주의자’임을 공언하며, 공약 또한 맘다니의 정책과 일치하거나 유사하다.

뉴욕과 시애틀에서 동시에 비주류 성향 후보가 시장에 당선됐다는 사실은 최근 미국 정치가 심상치 않은 변화의 바람을 타고 있음을 보여준다. 길게는 2008년 금융위기로 시작돼 2016년 민주당 대통령후보 예비경선의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돌풍과 ‘밀레니얼 사회주의자’ 세대의 등장 등을 거치며 전개돼온 탈신자유주의 흐름이 표출된 결과라 할 수 있고(립시츠, 2023), 짧게는 2기 트럼프 정부의 반민주적 공세에 맞서 반극우 정치가 폭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반극우연합의 정치가 급박한 과제로 부상하면서 동시에 반극우연합의 구심이 리버럴에서 좌파, 사회주의, 노동운동-사회운동 세력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최근 이런 흐름이 미국을 넘어 세계 곳곳에서 관찰된다. 뉴욕시장 선거와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 칠레 대선에서는 유력 극우파 대통령 후보에 맞서 중도좌파부터 급진좌파까지 포괄하는 광범한 반극우 선거연합이 결성됐고, 공산당 소속인 히아네트 하라 Jeanette Jara가 단일후보로 선출됐다. 프랑스, 영국 등지에서도 최근 극우정당의 급성장 and 집권 전망에 맞서 (기존 중도 좌우파가 아니라) 급진좌파가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장-뤽 멜랑송Jean-Luc Melenchon이 이끄는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가, 영국의 경우는 좌파 성향의 젊은 정치가 잭 폴란스키Zak

Polanski를 대표로 선출한 녹색당이 이에 해당한다.

이 글은 이런 전반적 경향의 일부로서 맘다니와 월슨이 거둔 성과를 살펴보려 한다. 우선 뉴욕시장 선거와 시애틀시장 선거에서 맘다니와 월슨이 각각 어떤 정치적 입장과 선거운동 전략을 통해 막강한 주류 후보를 제치고 광범한 대중의 지지를 받으며 시장에 당선됐는지 검토하겠다. 다음으로, 열띤 지지를 받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한 두 당선자의 핵심 정책을 정리하겠다. 그리고 두 사례가 보여주는 새로운 정치 실천 양태와 정책 지향이 미국과 다른 나라, 특히 한국 사회에 어떤 시사점을 제시하는지 짚어보겠다. 미리 결론을 말하면, 연방정부 차원에서 정책 전환이 가로막힌 상황에서 지역 차원의 정책 실험 기회를 얻 맘다니와 월슨의 사례는 한국의 경우에도 지역 수준에서 탈신자유주의 정치 실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2. 미국의 조건에서 주류 정치에 도전한 맘다니와 윌슨

1) 뉴욕 : DSA 대 민주당 주류

뉴욕은 워낙 민주당 세가 강한 곳이고, 역사적으로 미국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본거지이기도 했다. 맘다니가 속한 조직인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 DSA’의 회원이 이미 한 차례 시장을 역임한 바 있고(1990년에 최초의 흑인 시장이 된 데이비드 던킨스 David Dinkins), 20세기 초중반에 사회당 SPA이나 미국노동당 ALP 같은 좌파정당 소속 하원 의원들도 배출한 적이 있다(Goldberg, 2013; Meyer, 1989). 따라서 어느 정도는 맘다니 같은 인물이 시장에 당선될 기반이 마련돼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이런 배경을 지닌 뉴욕에서도 맘다니가 민주당 시장후보 예비경선에서 최종 승자가 된 것은 ‘이변’임에 분명했다. 뉴욕 주의 정치 명문가 출신이고 클린턴 정부에서 장관을 역임했으며 2010년대 내내 뉴욕 주지사였던 앤드류 쿠오모 Andrew Cuomo가 예비경선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쿠오모는 상습 성추행 혐의로 주지사 직에서 물러난 퇴물 정치인이었지만, 그럼에도 클린턴 가문을 비롯한 민주당 주류 거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반면에 뉴욕시의원(3선)이던 맘다니가 2024년 10월에 시장선거 출마를 처음 발표했을 때 여론조사에 잡힌 지지율은 1%에 불과했다.

그랬던 맘다니의 지지율이 급상승한 것은 전적으로 **호별 방문 선거운동** 덕분이었다. 호별 방문 선거운동이 법으로 금지된 한국과 달리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canvass라 불리는 이런 유권자 대면 접촉 선전이 허용된다. 그러나 ‘당원이 있는’ 정당, 즉 우리가 아는 현대적 대중정당 형태가 정착된 영국과, 그렇지 못한 미국은 사정이 좀 다르다. 미국의 양대 정당, 민주당과 공화당은 ‘당원이 없는’ 정당이다. 미국 민주당, 공화당은 현대적 대중정당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정당 형태(대체로 사회주의자들이나 노동운동이 앞장서서 만들었던)의 발전을 막기 위해 등장한 제도에 더 가깝다. 미국에는 이렇게 선거운동에 나설 당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비경선이나 본선에서 후보들이 막상 호별 방문 선거운동을 시도하기 쉽지 않다. 부자여서 유급 운동원을 대거 확보하거나 아니면 대단한 스타여서 혼자 힘만으로 자원활동가를 끌어 모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canvass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그러나 맘다니는 그렇지 않았다. 맘다니에게는 자신의 정치활동의 출발점이자 토대인 DSA 뉴욕지부 조직이 있었다. 흔히 DSA를 민주당 내 분파쯤으로 이해하지만, 이는 오해다. 1970년대에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진 미국의 유서 깊은 좌파정당인 사회당의 일부가 사회당의 뜻을 이어가려고 만든 정치조직이 DSA다(해링턴, 2014). 실은 DSA 자체가 독자적인 ‘정당’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2010년대에 ‘밀레니얼 사회주

의' 세대가 대거 가입하여 전국적으로 회원 수가 9만 명으로 늘어난 지금은 더더욱 그렇다. 물론 미국의 독특한 정치 제도에 적응하느라 공직 후보를 주로 '민주당 후보'로 출마시키기는 한다. 그러나 통상적인 정당 내부 분파는 아니므로 민주당 주류 엘리트에게 구속되지는 않는다. 바로 이 DSA의 뉴욕지부 회원과 지지자들이 맘다니 선거운동 자원활동가로 나서서 집집마다 방문하며 열성적인 대면 접촉 선전을 펼쳤다. 정책 선전에 초점을 맞춘 이 선거운동 전략이 먹혀들어서 6월의 민주당 시장후보 예비경선을 앞두고 맘다니 지지율이 수직 상승했다.

결국 6월 24일 민주당 예비경선에서 맘다니가 쿠오모를 물리치며 민주당 시장후보로 선출됐다. 그러나 대결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쿠오모는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다. 물론 본선에는 공화당 후보도 출마했지만, 요즘 뉴욕시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는 주요 후보 축에도 끼지 못한다. 따라서 뉴욕시장 본선에서는 익숙한 민주당 대 공화당 구도가 아니라 민주당 비주류(맘다니) 대 민주당 주류(쿠오모)의 구도가 펼쳐졌다. 민주당을 '빨갱이'라 부르며 공격하던 트럼프 정부는 '진짜 빨갱이' 맘다니의 승리가 눈앞에 다가오자 부랴부랴 쿠오모를 지지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런 복잡한 정치 게임은 2기 트럼프 정부에 맞설 반극우 연합 형성에 공감하는 많은 뉴욕 유권자들 사이에서 민주당 주류와 쿠오모에 대한 환멸만 증폭시켰다. 그 결과, '민주사회주의자' 뉴욕 시장이 출현하는 드라마가 완성됐다. 즉, 예비경선과 본선, 두 차례에 걸친 **DSA와 기존 민주당 엘리트의 대결**에서 두 번 다 DSA 세력이 승리를 거머쥐며 뉴욕시에서 반트럼프 전선의 중심으로 부상한 것이다.

2) 시애틀 : 돌풍의 진원, Transit Riders Union

시애틀에서 벌어진 일들도 뉴욕과 비슷했지만, 몇 가지 다른 대목도 있었다. 비슷할 수밖에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시애틀도 뉴욕처럼 진보적 시민사회가 발달하고 민주당 세가 강한 도시라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걸핏하면 시애틀을 콕 집어 치안 유지를 위해 군 병력을 파견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심지어 미국 서해안과 멕시코의 여러 도시에서 열릴 예정인 2026년 월드컵에서 시애틀에 경기를 배정하지 않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월슨의 도전이 맘다니와는 좀 다른 색깔을 띠 수밖에 없게 만든 시애틀만의 특징도 있다. 특히 선거 제도가 상당히 다르다. 뉴욕시 공직자 선거에서는 정당이 후보를 공천하게 되어 있지만, 시애틀은 정당 공천제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대다수 후보와 당선자는 공천 여부와 상관없이 민주당 성향이다. 선거에서 월슨의 경쟁자였던 현 시장 브루스 해럴 Bruce Harrell도 당적이 '민주당'으로 등록돼 있다. 정당 공

천제가 없으므로 시애틀에는 양대 정당의 공직후보 예비경선도 없다. 대신, **당적에 상관없이 모든 후보가 참여하는 예비경선**nonpartisan primary이 있다. 보통 이 예비경선에서 1, 2위를 차지한 후보가 본선에 진출하여 양강 구도로 경쟁한다. 말하자면 결선투표제가 있는 나라에서 실시하는 1차 선거에 해당하는 것이 시애틀의 공직후보 예비경선이고, 결선투표에 해당하는 것이 본선이다. 이번에도, 8명의 후보가 경쟁한 예비경선에서 월슨이 50.75%를 득표하고, 해럴 시장이 41.21%를 득표해 두 후보가 본선에서 맞붙었다.

이런 정치 제도의 차이 때문에 뉴욕에 비해 시애틀에서는 정당 정치 차원의 대립과 변화가 선명히 부각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내용을 따져보면, 시애틀에서도 진보적 사회운동과 ‘밀레니얼 사회주의’ 세대가 기존 민주당 지역 엘리트층에 도전한 게 사태의 핵심임을 알 수 있다. 부패 사건에 얽혀 시장직에 재도전하기 힘들어진 현 뉴욕시장 에릭 애덤스Eric Adams와 달리, 시애틀 시장 해럴은 민주당 주류 입장에서 보기에 무난한 시정을 펼쳤다. 월슨이 도전장을 내밀지 않았다면, 이번 선거에서도 해럴이 당선됐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2025년 2월에 실시된 **사회주택과 조세 정책에 관한 시민투표**가 해럴의 운명을 바꾸었다.

해럴이 공약했던 사회주택 확충을 위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투표의 쟁점이었는데, 해럴은 세금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 예산으로 신규 주택을 건설하자는 소극적 방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반면에 월슨을 비롯한 사회운동 세력은 사회주택 확충을 위한 목적세 형태의 법인세를 신설하자는 방안을 지지했고, 결국 이 방안이 시민투표에서 승리했다. 월슨의 시장직 도전은 월슨 한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시민투표에서 증세에 반대하는 재계의 편을 들며 시애틀의 심각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미온적인 모습을 보인 해럴을 더 이상 신임할 수 없게 된 진보적 시민사회 전반의 선택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월슨이 출마를 발표하자마자 시민투표에서 증세를 지지했던 단체들이 일제히 월슨 지지를 천명하며 선거운동에 합류했다.

월슨이 시애틀 사회운동 세력을 대표하는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오랫동안 지역 사회운동에 헌신해왔기 때문이다. 월슨은 금융위기 이후 미국 사회에서 자본주의에 의문을 던지는 계층, 세대, 흐름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던 2011년에 시애틀 지역운동 단체인 **Transit Riders Union, TRU**을 설립했다. 우리말로 옮기면 ‘대중교통 이용자 연합’ 정도가 되겠는데, 그렇다고 교통 문제에 특화된 단체는 아니었다. TRU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법한 보통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도시 생활을 둘러싼 온갖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해법을 찾는 활동을 벌였다. 다만, TRU를 설립하는 데 교통 문제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는 했다. 이 무렵 금융위기의 여파로 시애틀 시가 속한 워싱턴 주에서는 대중교통 예산이 삭감되고 서비스가 축소됐다. TRU는 초기에

이런 공공교통 감축을 원상회복시키는 데 주력했다. 그러다가 점차 지역 내 최저임금 인상이나 민간 임대료 통제 같은 쟁점으로 관심을 넓혔다. 이런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월슨은 끊임없이 재계의 눈치를 보는 해럴 시장과 사사건건 부딪혔다. 이것이 시장 선거에서 펼쳐진 드라마의 직접적 배경이었다.

뉴욕의 경우처럼 시애틀에서도 월슨 바람이 불었다. 그럼에도 20여만 명이 참여한 예비경선보다 8만 명 가량의 유권자가 더 참여한 본선에서는 월슨과 해럴의 표차가 2천여 표 밖에 되지 않았다. 월슨이 50.20%를 획득하며 시장에 최종 당선됐지만, 해럴 역시 49.47%라는 만만치 않은 지지를 받았다. 그만큼 시애틀 내 기존 민주당 주류의 막판 저항이 거셌던 것이다. 그러나 낡은 세력의 이러한 강력한 저항을 뚫고 시애틀에서도 어쨌든 좌파가 반트럼프 정치의 새로운 구심으로 부상하는 데 성공했다.

3. 맘다니와 일슨의 정책 지향 : 시민이 ‘감당할만한’ 도시 생활을 향하여

1) 맘다니의 주요 정책

그럼 맘다니 후보 진영은 어떤 정책으로 뉴욕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는가? 맘다니 후보의 주요 정책은 우선 현재 뉴욕 시민이 겪는 고통이 각종 **생활비 상승**에서 비롯된다는 진단에서 출발한다. 여기에는 식비부터 교통비, 자녀 양육비, 주거비 등이 두루 포함된다. 신자유주의가 저무는 이 시대에 자본주의의 심장부인 뉴욕에 서마저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소득은 좀처럼 오르지 않는 반면 생활필수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은 치솟는다. 특히 미중 대결, 코비드-19 팬데믹, 기후급변 등 복합위기가 심화하면서 생활비 상승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되어 버렸다. 맘다니 선거운동은 뉴욕 시민이라면 누구나 체감하는 이 문제를 파고들었다.

맘다니 후보가 약속하는 대안의 키워드는 **affordability**다. 우리말로는 ‘감당할 수 있음’ 정도로 옮길 수 있겠는데, 단순히 ‘무상’이라거나 ‘저렴하다’는 뜻은 아니다. 주택처럼 고가일 수밖에 없는 재화라 하더라도 그 비용이 뉴욕 보통 시민들의 소득으로 구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맘다니 선거운동 구호인 Affordable New York은 뉴욕에서 살아가는 것이 시민 소득 수준에서 충분히 ‘감당할만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처방에는 물론 공공이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무상 제공이 포함된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힘든 재화나 서비스도 있다. 이 경우에는 시장 가격에 대한 통제나, 아니면 공공이 시장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뉴욕 시민들의 일상 생활을 구성하는 필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이런 다양한 처방을 제시함으로써 생활비 전체를 ‘감당할만한’ 수준으로 조절하겠다는 것이 맘다니 정책의 기본 지향이다.

이 처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공, 즉 시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필수 재화, 서비스는 가능한 한 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되는 게 아니라 공공에 의해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자는 것이다. 이렇게 직접 소유, 운영하지 않더라도 시장 가격을 통제하거나 공공-민간 협력/경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역시 지방정부의 활발한 개입이 필요하다. 이것은 19세기 말-20세기 초에 서유럽 여러 나라와 미국에서 좌파정당, 노동운동 세력이 처음으로 지방정부 집권당이 됐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책이기도 하다. 당시 좌파 지방정부들은 사기업이 운영하면서 이용 요금을 비싸게 받던 상하수도나 가스관, 전차 같은 도시 생활의 기본 인프라를 인수하여 시영기업이 운영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상수도와 가스관의 사회주의’

(영국)나 ‘하수도 사회주의’(미국 밀워키)나 하는 말들이 유행했다. 오늘날에는 이런 역사적 사례들을 ‘지방자치 사회주의municipal socialism’라 부른다(Stromquist, 2023).

20세기 말-21세기 초에는 이와 정반대로 기존 공공부문을 사유화하여 필수 재화나 서비스를 사기업의 이윤 창출 수단으로 만드는 것이 대세였지만, 이제 역사의 추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맘다니 후보 진영의 주요 정책은 바로 이런 시대 정신의 표현이다. 그래서 ‘지방자치 사회주의’의 부활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혹은 기본소득, 일자리보장제 등과 함께 21세기 사회국가의 핵심 정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보편 기본 서비스universal basic services’ 구상(쿠트 · 퍼시, 2021)의 구현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런 지향을 담은 맘다니 후보의 여러 공약 중에서도 특히 다음 같은 내용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목을 끌었다.

① **민간 임대료를 동결한다.** 뉴욕시는 민간 임대료 통제를 위해 민간 임대 공동주택에 대해 ‘임대료 안정화’ 제도를 실시한다. 1947년에서 1974년 사이에 건설된 공동주택이나, 1974년 이후에 건설됐더라도 소유주가 세금 감면을 대가로 ‘임대료 안정화’ 협약에 참여한 공동주택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임대료 안정화’ 제도에 참여하는 공동주택의 임대료는 뉴욕시장이 지명한 위원들로 구성된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매년 결정하는 상한선 이상으로 인상될 수 없다. 그러나 애덤스 시장이 구성한 위원회는 임대인들의 요구에 맞춰 상한선을 높게 결정했고, 이는 뉴욕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켰다. 맘다니 후보는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임대료 동결을 결정하게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② **사회주택 20만 호를 새로 건설해 공급한다.** 민간 건설업자에게 신규 주택 공급을 맡겨서는 서민이 ‘감당할만한’ 가격으로 질 좋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힘들다. 맘다니 후보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향후 10년간(뉴욕시장 임기는 4년이며 최대 2회 연임할 수 있다) 20만 호의 사회주택을 새로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시공업체는 노동조합원을 건설 인력으로 고용해야만 하며, 완공되고 나면 분양하지 않고 적정 가격으로 서민들에게 임대한다.

③ **무상 보육을 실시한다.** 맘다니 후보가 주거비 다음으로 뉴욕시민들을 짓누르는 생활비 항목으로 지목한 것은 자녀 양육비다. 실제로 뉴욕을 떠나는 가족 가운데 6세 이상 자녀가 있는 가족이 그렇지 않은 가족보다 두 배 많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맘다니 후보는 생후 6주부터 5세까지의 모든 어린이에게 무상으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동시에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 교사에게 공립학교 교사와 같은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④ **버스 요금을 단계적으로 무료화한다.** 뉴욕의 버스는 요금도 비싸고 속도로 느린

것으로 악명이 높다. 맘다니 후보는 시내 5개 노선부터 버스 요금을 무료화하고 점차 모든 노선을 무상화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또한 서울에도 익숙한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해 버스 운행 속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⑤ **시영 식료품점을 운영한다.** 최근 뉴욕시민들이 가장 절박하게 느끼는 민생 문제는 식료품 가격 상승이다.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기후위기로 농업 생산이 요동치기 때문이지만, 독점적 유통업체들이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 맘다니 후보 진영은 일정 구역마다 시영 식료품점을 개설해 이 문제에 맞서겠다고 공약했다. 시영 식료품점은 세금이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수익성을 중심에 두지도 않으며 생산자들과 직접 거래하여 유통의 비효율성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영 식료품점이 민간 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식료품을 유통하면, 민간 업체들도 가격 인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시영 식료품점은 유통산업 독점기업들의 횡포를 막고 유통 체계를 혁신하는 방향에서 식료품 시장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⑥ **‘녹색학교’를 기후변화 대응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체제 전환과 재난 예방은 맘다니 후보 진영의 또 다른 핵심 정책 기조다. 그 출발점은 학교를 비롯한 공공 건축물의 활용이다. 공공 건축물로부터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해 에너지 ‘소비’만이 아닌 ‘생산’의 구심으로 만들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리모델링의 모범으로 삼는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하는 것은 학교다. 맘다니 후보는 ‘녹색학교’를 공약했는데, 그 내용은 뉴욕시의 500개 공립학교에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제공하는 리모델링을 실시하며 주위의 아스팔트를 뜯어 녹지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또한 50개 학교를 선정해 기후재난 대피 센터를 겸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맘다니 후보 측의 추산에 따르면, 이런 ‘녹색학교’ 전환 프로그램 만으로도 1만 5천 개의 질 좋은 일자리를 새로 만들 수 있다고 한다.

⑦ **법인세 인상과 부자 증세로 재원을 조달한다.** 이 모든 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맘다니 후보는 고수익을 누리는 기업과 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근 뉴저지 주에서 실시하는 것과 같은 수준(11.5%)으로 법인세를 인상하고, 뉴욕시민 중 소득이 최상위 1%에 속한 부유층에게 2%의 소득세를 추가로 걸겠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맘다니 후보가 시장에 당선된 뒤에 당선자 주위의 정책가들이 뉴욕시가 소유, 운영하는 지역은행 설립을 강력히 주장한다는 점이다. 뉴욕 지역은행이 설립되면, 보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공공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월슨의 주요 정책

월슨의 정책은 맘다니의 정책과 대단히 유사하다. 기본 구조 자체가 거의 같다. 월슨 후보 진영 역시 생활비 상승, 기후급변, 트럼프 정부의 위협 등이 현재 시애틀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가장 급한 현안들이라 판단한다. 그리고 부자 증세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공공이 시민들에게 필수재, 필수서비스를 무상으로 혹은 저렴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대안의 큰 방향 역시 맘다니의 정책과 대동소이하다. 이것은 뉴욕이든 시애틀이든 ‘밀레니얼 사회주의’ 세대를 중심으로 한 좌파의 이념, 노선이 서로 비슷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고, 신자유주의 쇠퇴 이후의 혼란기에 지역 차원에서 미래를 헤쳐 나갈 대안으로 다들 지방자치 사회주의의 21세기적 진화형을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다만, 뉴욕과 다른 시애틀만의 특징이나 사정으로 인해, 맘다니 후보의 정책에서는 핵심 정책으로까지 부각되지 않지만 월슨 후보의 정책에서는 유독 강조되는 내용들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흡리스 문제와 아편계 마약(펜타닐 등) 중독자에 대한 대안**이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제시된다는 점이다. 시애틀에서는 5000명에 가까운 흡리스들이 공원이나 거리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다. 또한 시애틀은 샌프란시스코 같은 다른 서해안 도시들처럼 최근 펜타닐 중독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곳이기도 하다. 이 문제들은 시장 선거에서 월슨과 해럴, 두 후보의 격렬한 논쟁 주제가 됐다. 이에 대한 대안을 비롯해 월슨 후보의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① **10억 달러 넘는 재정을 확보해 사회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한다.** 뉴욕과 마찬가지로 시애틀도 자기 집을 소유한 가구와 그렇지 못한 가구의 비율이 미국 전체(자가 보유 가구가 65%)와 정반대다(자가 보유 가구가 44%). 월슨 후보는 시 전체 가구의 절반이 넘는 임차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료가 5% 이상 인상되지 못하게 규제하고, 질 좋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보다는 오직 수익만을 노리는 민간임대기업의 주택 구입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맘다니와 마찬가지로 사회주택을 대규모로 신축하여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흥미로운 것은 10억 달러 상당의 지방채를 발행해 사회주택 건설 기금을 확보하겠다는 재정 계획이다. 10억 달러라는 규모가 너무 거창해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시애틀이 속한 킹 카운티King County는 이미 10억 달러의 지방채를 발행해 사회주택 공급에 사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중이며, 월슨 후보의 공약은 이를 참고한 것이다.

② **감당할만한 가격의 보편적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역시 맘다니 후보의 주요 공약과 겹치는 내용이다. 워싱턴 주에서는 이미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주 차원에서 보편적 보육 서비스를 구축하자는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으며, 월슨 후보는 이 캠페인과 협력해 시애틀에서부터 보편적 보육 서비스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보육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월슨 후보의 공약에는, 시애틀을

어린이들이 놀고 배우며 자라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공원, 공중화장실, 놀이터 등을 늘리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③ **4천 호의 비상 쉼터와 주거를 확보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홈리스 문제는 시애틀의 뜨거운 현안 가운데 하나다. 월슨 후보는 홈리스 문제에 관한 한, 장밋빛 장기 청사진을 제시하기보다는 긴급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장 빈집 등을 활용해 4천 호의 비상 쉼터, 주거를 확보해 홈리스들이 거주할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시 재정으로 아편계 마약 중독자를 위한 갱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단속과 추방이 아닌 정신-신체 건강 회복 중심의 접근법을 취하겠다고 공약했다.

④ **개인 승용차 사용을 최소화하는 ‘이동양식 전환’을 통해 기후위기, 대기오염 등에 대응한다.** 월슨 후보의 정책에서 특히 강조되는 내용은 ‘이동양식의 전환’이다. 개인 승용차 위주가 아니라 걷기, 자전거, 대중교통 중심의 이동양식이 정착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기후위기에 맞서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이며, 대기오염을 줄이며 가로 공간을 자동차가 아닌 사람에게 되돌려주고 어린이들의 놀이 공간을 늘리는 등의 풍부한 부수효과를 수반한다. 월슨 후보가 제시한 구체적 방안 중 하나는, 시애틀의 상업-문화 중심지인 캐피톨 힐Capitol Hill 구역을 시애틀 최초의 ‘차 없는 거리’로 만드는 것이다.

⑤ **소득과 자산에 대한 누진과세로 재원을 확보한다.** 월슨 후보 역시 부자 증세로 새로운 정책들을 집행할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재산세의 누진성을 강화하고 주식과 채권 같은 무형자산에 대한 과세를 신설하도록 워싱턴 주의 세법에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빈집 소유주들이 집을 임대시장에 내놓도록 압박하는 ‘빈집세’ 등 여러 한시적 목적세도 공약했다.

4. 한국 사회에 던지는 함의

지금까지 소개한 맘다니와 윌슨 후보의 공약에서 전에 보지 못한 신기한 정책을 찾으려 한다면, 아마도 실망할 것이다. 많은 내용이 과거 복지국가의 정책을 이어받은 것이고, 신자유주의 전성기에 좌파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것이다. 또한 한국의 진보정당이 선거 때마다 제시한 핵심 정책들에 이미 자주 등장한 내용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2025년 시점에, 그것도 미국에서 유독 이 정책들이 대중의 환호를 받으며 새로운 지방권력의 토대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 진보 세력도 비슷한 주장을 해왔는데, 한국과 미국에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또 무엇인가?

첫째, **금융위기 이후** 거의 20여 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미국 사회에서 **아래로부터 심원한 변화**가 전개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금융자본주의에 실망하여 급진적 대안을 찾아 나선 ‘밀레니얼 사회주의’ 세대의 등장은 1980년대 한국 사회에 ‘86’세대 혹은 ‘민주화’ 세대에 등장한 사례에 비견될만한 중대한 변화였다(로빈슨, 2021). 이들 중에서도 가장 활동적인 부분이 DSA에 결합함으로써 ‘미국판 진보정치 운동’이 지금까지 지속됐고, 뉴욕과 시애틀 선거 결과는 이런 흐름의 한 표현이다. 냉정히 말하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 맘다니의 정책을 똑같이 외친다고 하여 동일한 정치적 효과를 낼 수는 없다. 우리의 경우에도 정치-사회운동의 꾸준한 실천을 바탕으로 아래로부터 대중의 상식, 시대정신이 (서서히, 하지만 돌이킬 수 없이) 변화하지 않고는 현실 정치의 즉각적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

둘째, 미국에서는 이런 변화를 바탕으로 현실 정치에서 **좌파가 리버럴에 도전**하고 있고, 이런 도전이 대중의 지지를 모을 수 있음을 확인하는 중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오랫동안 좌파는 리버럴에 종속된 신세였다. 미국식 정치 제도를 통해 단단히 고착된 양당 중심 정치에서 사회주의, 노동운동 세력은 민주당 주변의 ‘이질적’ 구성 요소가 되도록 강요받았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민주당 자체의 신자유주의 노선이 이런 종속 상태가 더 이상 지속되기 힘들게 만들었고, 좌파, 사회운동의 주체적 노력을 통해 미국 조건에 나름대로 적응한 도전 세력이 형성됐다. 이로써 양당 구도가 아니라, **극우화된 공화당 대 민주당 주류 리버럴 대 좌파 도전 세력의 3분 구도**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뉴욕과 시애틀의 선거 결과는 그 증거였다. 맘다니와 윌슨의 정책은 이런 정치 지형 변화와 얽혀 있었기 때문에 대중에게 호소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결국 **‘정치’혁명 없이는 ‘경제-사회’혁명도 있을 수 없다**(샌더스, 2015).

셋째, 맘다니와 윌슨이 제시한 정책이 거둔 커다란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커다란 도전 과제가 기다리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무엇보다 21세기형 지방자치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즉 시민 생활의 필수 재화와 사회서비스를 탈시장화-탈상

품화된 형태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이 여전히 숙제다. 맘다니, 월슨 모두 부자 증세를 통한 자원 확보를 제시했지만, 신자유주의 시기에 형성된 조세 저항 구조와 심리를 과연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 아마도 맘다니나 월슨이 제시한 개별 공약의 실현 자체보다도,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가 구축해 놓은 단단한 재정 도그마(부자 감세, 재정 건전성 미신 등)를 과연 흔들거나 무너뜨릴 수 있을지 여부가 세계사의 전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한국의 진보-사회운동 세력도 특히 이 점을 예의주시하면서 **신자유주의 도그마를 넘어서는 재정 정책 기조(부자 증세+복지 증세, ‘기능적’ 재정 정책의 부활, 비전통적인 공영은행의 활용 등)**를 발전시켜야 한다(랜덜 레이, 2017; 2025).

5. [자료] 조란 맘다니의 뉴욕시장선거 공약

[모토] 뉴욕은 너무 비쌉니다. 생활비를 낮추고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겠습니다.

1) 주택

- 임대료를 동결하겠습니다.

뉴욕 시민 대다수는 세입자이며, 그 중 200만 명 이상이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들은 도시 노동계급의 경제적 안정의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애덤스 시장은 세입자를 쥐어짜기만 했으며, 그가 임명한 '임대료 가이드 라인 위원회'는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의 임대료를 12.6% 인상했습니다.

조란이 시장이 되면 모든 '임대료 안정화' 주택 세입자들의 임대료를 즉시 동결하겠습니다.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뉴욕 시민들에게 필요한 주택을 건설하고 임대료를 낮추겠습니다. 노동자 가족이 뉴욕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주택난입니다. 시장은 이를 바꿀 권한이 있습니다.

- 서민이 충분히 비용을 감당할만한 주택을 건설하겠습니다.

뉴욕시는 서민이 비용을 감당할만한 주택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뉴욕시는 민간 개발업자들을 위한 토지 용도 변경만 반복했으며, 그 결과 주택난은 더욱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실제로 지어진 주택은 이를 가장 필요로 하는 노동계급에게는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었습니다.

조란이 시장이 되면 공공 자금을 투입하여 '비용이 영구적으로 감당할만한 수준을 넘지 않으며' '건설노동조합원들을 통해 건설되고' "'임대료 안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택의 생산량을 세 배로 늘리겠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20만 채의 신규 주택을 건설하겠습니다.

주거 확충을 위해 조란은 감당 가능성, 형평성, 성장을 종합하는 비전을 수립하는 '뉴욕시 종합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계획을 통해 뉴욕시는 인종 차별적 구역 설정의 잔재를 없애고, 교통 허브 근처의 밀도를 높이며, 주차장 건설 요건을 폐지하고, 미래를 선제적으로 그려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악질 집주인을 단속하겠습니다.

작년 겨울 세입자 가구 열 곳 중 한 곳은 난방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네 곳 중 한 곳에는 쥐가 있습니다. 50만 명이 열악한 주거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뉴욕 시민은 안전하고 건강한 집에 살 자격이 있습니다. 이에 조란은 시장 직속 ‘세입자 보호’ 부서를 설치하여 건물 소유주에게 건물 상태를 책임지게 만드는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임차인이 311번[시청 민원실 전화번호]에 신고한 문제 주택에 대해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하면 시에서 수리를 완료하고 집주인에게 청구서를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극단적으로 집주인이 주거 상태를 계속 방치할 경우에는 시 당국이 주택을 관리하겠습니다. 최악의 집주인은 민간 임대업에서 퇴출시키겠습니다.

- 자가 주택 보유자를 지원하고 주택 문서 위조를 종식시키겠습니다.

뉴욕시 자가 보유자의 25%가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택에 지출하고 있으며[주택담보대출], 이는 뉴욕시 이민자 공동체와 흑인 및 라틴계 지역의 가장 심각한 민생 문제입니다. 조란은 뉴욕주 하원에 진출하기 전에 압류 방지 주택 상담사로 활동하면서 이들 뉴욕 시민들과 직접 협력했습니다. 조란은 뉴욕시의 재산세 제도가 부유한 지역의 자가 보유자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세금 담보권 판매 제도[세무당국이 체납 세금 징수권을 민간에 판매하는 제도] 때문에 많은 가족이 집에서 쫓겨나고 있다는 것, 주택 문서 위조를 통한 소유권 갈취 때문에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투기꾼과 빈민가의 집주인들이 노동계급 시민들을 쉽게 집에서 내쫓을 수 있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조란이 시장이 되면 이 문제들의 해결에 착수하겠습니다.

조란은 사기꾼으로부터 주택 보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 문서 위조 방지’ 부서를 설치하겠습니다. 가장 부유한 동네들이 공정한 세금을 내도록 재산세 제도를 고치겠습니다. 또한 세금 담보권 판매 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2) 안전

- 지역사회안전부를 신설하겠습니다.

모든 뉴욕 시민은 안전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애덤스 시정부는 모든 사람이 거리를 걷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면서 느껴야 할 안전을 보장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조란은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여 지속적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사회 안전부’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사회안전망의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력에 의존하는 바람에 경찰이 자기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만들 지경입니다. 반면에 조란이 시장이 되면, 지역사회안전부와 시정

부 전체의 노력을 통해 지역 사회 안전을 실현하겠습니다.

지역사회안전부는 정신 건강 프로그램과 위기 대응에 투자할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100개의 지하철역에 전담 홍보 인력을 배치하고, 비어 있는 상업 시설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뉴욕 시민들의 여행을 돕기 위해 교통 안내원을 늘리겠습니다. 또한 총기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증오 폭력 예방 프로그램 예산을 800% 증액하겠습니다.

3) 감당할만한 수준의 생활비

- 시영 식료품점을 개설하겠습니다.

음식 가격이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뉴욕 시민 10명 중 9명은 식료품 가격이 수입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들만이 가계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조란 시장은 이윤이 아니라 식료품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시소유 식료품점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시영 식료품점은 임대료나 재산세를 내지 않으므로 간접비를 줄일 수 있고, 돈을 아낀 만큼 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영 식료품점은 도매가격으로 사고팔고, 창고와 유통을 중앙집중화하며,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 공급할 것입니다. 뉴욕시가 이미 수백만 달러를 지출하여 사설 식료품점 운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공공 자금을 진정한 '공공적 해결책'에 투입해야 합니다.

- 쾌속 무상 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은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며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뉴욕 시민 5명 중 1명은 계속 오르는 교통비를 감당하느라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뉴욕의 버스는 전국에서 가장 느리며,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고 있습니다.

조란이 시장이 되면, 모든 시내버스의 요금을 영구적으로 없애고, 버스 우선 차선을 신속하게 구축하여 버스가 더 빠르게 운행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쾌속 무상 버스는 신뢰할 수 있고 접근하기 쉬운 교통수단일 뿐만 아니라, 승객과 운전자의 안전을 향상시켜 뉴욕 시민들이 받아 마땅한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 기업의 착취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뉴욕의 노동계급은 점점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반면 도널드 트럼프와 그 대기업

친구들은 지갑을 불리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소비자 보호를 완화하고 CEO, 사기꾼, 공급 독점, 구매 독점 권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뉴욕시장은 기업의 탐욕에 맞서고 노동계급의 민생을 지켜야 합니다. 조란은 그릇된 광고와 약탈적 계약에 맞서 싸우고, 모든 숨은 수수료를 금지하겠습니다. 임금을 억제하고 고용주가 노동자를 착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쟁금지 조항[특정 계약 당사자의 피고용인이 퇴사 이후에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고용주에게 고용되지 못하게 막는 제도]를 금지하겠습니다. 조란은 NDA[비밀유지계약, 계약 당사자들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기로 하는 상호 약속]가 보호하는 계약에 의해 열세가 은밀하게 기업에 뇌물로 제공되는 관행을 중지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전력 공급업체들에 도전하는 시도를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ConEd[Consolidated Edison, 뉴욕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기업]가 마음대로 가격을 인상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4) 유아 및 교육

- 무상 보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임대료 다음으로 뉴욕의 직장인 가정에 부담이 되는 것은 육아 비용입니다. 육아 부담 때문에 많은 가족이 뉴욕을 떠나고 있습니다.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뉴욕 시민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두 배 더 많은 비율로 뉴욕을 떠납니다. 특히 육아를 위해 유급 일자리를 포기하는 어머니들이 가장 큰 짐을 짊어집니다.

조란이 시장이 되면 6주에서 5세 사이의 모든 아동에 대해 무상 보육을 실시하고, 질 좋은 육아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4분의 1이 빈곤선 아래에 있는 보육 노동자들의 임금을 공립학교 교사들과 동등하게 인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유아 발달을 촉진하고, 가정의 지출을 줄이며, 많은 가족이 이 도시를 고향이라 부르며 머물도록 만들겠습니다.

- 뉴욕 신생아를 위한 아기 바구니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뉴욕에서 매년 125,000명이 태어나지만, 생활비 상승 위기로 인해 건강한 출발을 하기 어렵습니다. 맘다니 시정부는 전 세계 90개 이상의 유사한 프로그램의 성공을 바탕으로, 기저귀, 아기 물티슈, 수유 패드, 산후 패드, 배내옷, 책 등 다양한 필수 물품과 자원을 무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뉴욕의 아기 바구니에는 뉴욕시의 신생아 가정 방문 프로그램, 모유 수유, 산후 우울증 등에 대한 정보가 담긴 가이드도 포함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후 산모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프로그램이

보여주듯이, 연간 2천만 달러 미만의 비교적 적은 투자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의 안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 초중고등학교

조란은 공립학교가 재정 지원을 충분히 받아서, 효과적인 방과후 프로그램, 정신 건강 상담사 및 양호교사, 적절한 학급 규모 등을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학급규모법에 따라 요구되는 7,000-9,000명의 교사 추가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교사를 양성하고 검정하며 채용하는 '지역 공동체-학급 연계'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공립학교에서 3년간 교사로 근무하는 대가로 학비를 지원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골자입니다.

조란은 교통사고 사망을 방지하고, 놀이 공간을 확보하며, 학교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없는 '학교 거리'를 조성할 것이며, 브롱크스에서 성공을 거둔 시범 프로그램 '모든 아이와 가족 알기'를 확장하여 학생 노숙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조란은 시장이 학교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 학생, 교육자, 행정가들이 협력하여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욕주정부와 협력하여 뉴욕대학과 컬럼비아대학로부터 세금을 걷어 뉴욕시립대학(CUNY)에 지원하는 '뉴욕시립대학 뉴딜'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뉴욕시립대학교의 인프라에 투자하고, 직원과 교직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며, 모든 학생에게 무료 지하철이용카드를 제공하고, 지난 13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모든 학생이 무상으로 뉴욕시립대학교의 고등교육을 받게 하겠습니다.

5) 재원 확보

- 법인세를 인상하고, 1% 초부자에게 과세하겠습니다.

조란은 시영 식료품점, 보편적 무상 보육 같은 대담한 제안을 통해 생활비를 낮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선 법인세율을 뉴저지주의 11.5%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여 50억 달러의 추가 세입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연간 소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뉴욕 시민 중 가장 부유한 1%에게 일률적으로 2%의 세금을 부과하겠습니다(현재 시 소득세율은 5만 달러를 벌든 5천만 달러를 벌든 동일). 조란은 또한 상식적인 조달 개혁을 단행하고, 무분별한 수익 계약을 종식시키며, 세무 감독관을 더 고용하고, 악질 집주인로부터 벌금을 징수하여 10억 달러의 추가 세입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6) 기후위기 대응

- 기후위기 대응 프로그램

‘녹색 뉴욕’은 조란 시정부의 핵심 정책이 될 것입니다. 조란은 공공 재생에너지 건설법, 건물 전기화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했고, 자신의 지역구에서 공해를 일으키던 가스 공장을 폐쇄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또한 지하철과 버스 운영 예산을 1억 달러 이상 늘렸고, 뉴욕 최초의 무상 버스 시범사업을 탄생시켰습니다.

조란이 시장이 되면 이러한 노력을 계속하여 도시 전역에서 대규모 탈탄소화 및 기후 회복력 증진을 추진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풍부한 공공 토지에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구축하고 중위소득계층 주택 보유자를 위한 지원 사업을 강화하는 조치가 포함될 것입니다.

또한 홍수 방지를 위한 인프라, 공공 수변 설비, 안전하고 회복 탄력적인 주거 등을 우선시하는 재난 대비 프로그램을 시행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유형의 기상 현상보다 더 많은 사람들, 특히 뉴욕의 유색인 주민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극심한 더위에 대처하기 위해 각 기관이 서로 협력하는 접근법을 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onEd가 공공요금을 10% 이상 인상하려 한다면, 이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 더 건강한 뉴욕을 위한 ‘녹색 학교’

기후 위기 대응과 삶의 질 개선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둘은 서로 깊이 얽혀 있습니다. 조란은 공립학교에 전례 없는 재원을 투입하여 보다 청정한 뉴욕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란의 더 건강한 뉴욕시를 위한 ‘녹색 학교’ 프로그램은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냉난방·환기 설비 업그레이드를 통해 500개 공립학교를 개조하고, 500개의 아스팔트 운동장을 활기찬 녹지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그러면서 15,000개의 일자리(모든 인력이 노동조합에 속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상시에 대피 및 복구 센터 역할을 할 허브를 50개 학교에 구축하겠습니다.

7) LGBTQIA+ 보호

미국 전역의 퀴어와 트랜스젠더들이 점점 더 적대적인 정치 환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성소수자의 피난처여야 합니다. 하지만 뉴욕의 많은 기관들이 이미 트럼프의 트랜스젠더 권리 공격에 굴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노동계급이 직면한 생활비 상승 위기는 성소수자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성소수자 공동체는 특히 실업률과 노숙자 비율이 높아 어려움이 더 큼니다. 맘다니 시정부는 성소수자를 보호할 것

입니다. 성소수자를 위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성소수자 담당 부처를 설립하겠습니다.

8) 의료 서비스

뉴욕 시민의 12%가 무보험자입니다. 조란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조란은 시민들의 의료 시스템 검색을 지원하는 자원활동가 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자원활동가 팀원들은 환자들이 어떻게 공공 재정 지원을 받고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지에 대해 도움을 줄 것입니다. 트럼프가 공중 보건, 특히 임신 중지 관련한 서비스를 공격하는 상황에서 조란은 자원활동가 팀을 통해 이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비용을 감당할만한 양질의 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한편 뉴욕의 공공 병원 시스템은 연간 100만 명 이상의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중 보건 인프라의 정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재정 압박 탓에 투자 부족, 인력 부족, 간병인의 과중한 부담 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요 지역 병원이 계속 폐쇄되고 있습니다. 조란은 의료노동조합 및 시, 주 차원의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H+H[NYC Health + Hospital, 뉴욕시 차원의 공공 의료 시스템]에 자금 지원을 늘리고 병원 폐쇄를 중단시킬 것입니다.

조란이 시장이 되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edicare Advantage, 민간의료보험회사를 통한 의료보장 프로그램]를 거부하고, 서비스 노동자의 본인 부담금 인상을 막겠습니다. 대신 퇴직자, 노동자 및 그들의 노동조합과 협력하여 영리 추구 중심의 의료 시스템을 공영화함으로써 모든 시민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겠습니다.

9) 노동

- 노동조합과 협력하여 노동의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조란 시장은 노동조합원이든 조합원이 아니든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뉴욕시의 강력한 노동운동과 협력할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소비자 · 노동자 보호부’의 역할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이 해고의 두려움 없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안전한 일자리’법 제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모든 시 발주 사업의 계약자, 시 재정이 투입된 개발 프로젝트, 시 재정 지원 기관 및 그 계약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노동 기준을 요구하고 노사 평화 협정을 필수 요건으로 요구함으로써, 공공부문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가 단체교섭권과 더 강력한 단체협약을 확보하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란은 뉴욕시의 패스트푸드 최저임금법과 유

사하게 전 산업에 걸쳐 더 나은 임금과 근로 조건을 제공하는 단체협약 일반적용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 2030년까지 최저임금을 30달러로 인상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에서 최저임금이 기아임금이 되어선 안 됩니다. 하지만 어렵게 쟁취한 뉴욕주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는 여전히 기아임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실제 생활비와 일치하지 않을 때, 정부는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는 사실상 저임금 고용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조란은 시장이 되면 2030년까지 뉴욕시 임금 수준이 시간당 30달러 이상이 되도록 인상하는 새로운 지역 단위 최저임금 법률을 주창할 계획입니다. 이 법률이 제정되면, 생활비 상승과 생산성 향상에 따라 최저임금이 자동 인상될 것입니다. 경제는 노동자들의 호주머니가 더 두둑해질 때 번영하는 법입니다.

- 배달 앱을 규제하고 배달 노동자를 보호하겠습니다.

배달 앱 산업은 뉴욕시를 변화시켰습니다. 식품, 음식, 약품을 24시간 연중무휴로 공급하는 배달 노동자는 이 도시를 운영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빠른 속도로 도시를 질주하는 앱 기반 배달 노동은 이제 뉴욕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일상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80,000명의 유색인, 이민자 노동자로 이뤄진 배달 노동자들은 배달 시간을 줄일 것을 강요하는 앱 회사들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앱 회사들은 배달 노동자들에게 모든 노동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와 혜택을 제공하지 않기 위해 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배달앱 이용자, 식당 주인, 소규모 사업체, 자전거 이용자, 보행자 모두 앱 회사의 약탈적 정책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앱 회사들의 요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거리의 안전이 위협받고, 배달 노동자들의 삶이 더욱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맘다니 시정부는 배달 앱의 인가 요건을 강화하고, 배달 노동자를 지원하는 설비와 재원을 늘리며, 전기 자전거 프로그램과 배달 노동자 허브 같은 거리 인프라를 개선하겠습니다.

10) 중소기업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도시이지만, 뉴욕을 만드는 사람들은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뉴욕시 전체 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민간 부문에서

뉴욕 시민의 거의 절반을 고용하는 소상공인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고 있고, 이것은 사업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크고 관료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뉴욕 시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소상공인들은 꿈을 잃으며, 우리 도시는 개성을 잃게 됩니다.

조란은 뉴욕에서 더 빠르고 더 쉽고 더 저렴하게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잡화점과 모퉁이 가게가 문을 닫지 않게 하고, 서민들이 물품을 소량 구매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부담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허가 속도를 개선하며, 온라인 신청을 더 쉽게 만들고, 1:1 중소기업 지원 자금을 500%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자영업 전담' 부서를 신설하겠습니다.

11) 도서관

도서관은 뉴욕시의 성공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도서관은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 여름 더위를 피해 시원하게 쉴 곳을 제공하며, 중요한 커뮤니티 허브 역할을 하고, 뉴욕 시민들이 경력을 개발하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애덤스 시장은 오히려 도서관을 폐쇄했습니다. 조란은 뉴욕주 하원의원 시절에 브로드웨이 도서관 예산 복구를 위해 지역 단체들을 도왔으며, 의회 재량 기금을 사용하여 퀸즈 공립 도서관을 지원했습니다. 조란이 시장이 되면 도서관 자금을 예산 협상 카드로 사용하던 관행을 종식시키고, 뉴욕시 예산의 0.5%를 도서관에 책정하여 서비스와 시설 개선을 보장할 것입니다.

12) 트럼프로부터 안전한 뉴욕

2기 트럼프 정부는 뉴욕 시민들을 그들의 가족에서 끌어내기 위해 ICE 요원들을 배치했습니다. 또한 관세 정책을 통해, 이미 높아진 물가를 더욱 치솟게 만들었으며, 일하는 뉴욕 시민들이 매일 의존하는 중요한 사회서비스를 위협해 왔습니다.

조란 맘다니는 노동계급을 착취하려는 트럼프의 시도에 맞서 싸우고, 모두가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 것입니다. 모든 시 시설에서 ICE 요원을 축출하고 ICE와의 협력을 중지시키며 모든 개인 정보를 보호함으로써 뉴욕의 이민자 시민들이 보호받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조란은 뉴욕을 성소수자가 보호받고 임신 중지권이 보장되는 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 · 노동자 보호부'와 뉴욕 인권위원회의 예산을 늘리고 법무부를 강화하여 노동자를 보호하고 현행 법률이 시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6. [자료] 케이티 윌슨의 시애틀시장선거 공약

1) 노숙자 문제에서 성과를 이뤄내겠습니다.

- 4년 안에 4,000개의 비상 주택과 쉼터를 신설하겠습니다.

4년 안에 4,000개의 새로운 비상 주택 및 쉼터를 열어 해럴 시장 임기 중에 벌어진 쉼터의 감소를 반전시키고 사람들이 실내에서 지낼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음 같은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소형주택촌, 신앙 공동체와의 파트너십, 시 재정을 지원하는 임대료 바우처, 최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이들이 사회에 다시 정착하게 만들기 위한 시소유 주택 마련 등.

- 약물 중독 문제를 공중 보건 위기로 바라보고 대처하겠습니다.

약물 중독, 특히 아편계 합성약물인 펜타닐의 폭발로 거리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상응하는 시정부의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해결하려면 더 많은 투자와 시 부서, 기관, 서비스 제공단체, 사법부 간의 보다 긴밀한 연계가 필요합니다.

각 사례에 대한 집중적인 돌봄과 함께, 아편 치료 프로그램, 메스암페타민 치료의 혁신, 이동 치료 서비스, 약물 사용 장애 상담, 회복을 위한 주거, 문턱이 낮은 쉼터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쉼터와 지원 주택을 위해 24시간 연중무휴 현장 돌봄 팀에 투자하겠습니다. 약물 사용 장애와 행동 건강 치료를 위해 시애틀 바깥으로 여행해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으며, 이로 인해 재발, 건강 및 안전 문제, 퇴거 등의 위험이 커집니다. 처방 능력을 갖춘 의료 전문가를 현장에 배치하면, 이러한 문제를 크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아편 치료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행동 건강 및 쉼터 프로그램에 대한 계약 및 임대 권한을 합리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정부가 새로운 쉼터, 행동 건강 병상, 약물 사용 장애 전문가를 위한 서비스 계약 등을 마련함으로써 펜타닐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안전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장기화된 노숙자촌부터 신속하게 해결하겠습니다.

현 시장 브루스 해럴은 자신의 '통합 돌봄 팀'이 노숙자들을 쉼터, 서비스와 연결해 준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노숙자들을 도시 곳곳에서 쫓아냄으로써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보다 더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사태 동안, 몇 달간의 지방 정부 활동 끝에 시애틀 시내 곳곳에 들어

선 대규모 야영지를 효과적으로 해결한 ‘정의로운 돌봄’ 파트너십이 구축됐습니다. 성공적이고 널리 지지받았던 이 모델은 코로나19 구호 기금이 종료되자 중단될 수밖에 없었고, 해럴 시정부는 이를 되살리려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델을 복원하고 확장하겠습니다.

- **노숙자가 영원히 노숙 상태를 맴돌게 만드는 회전문을 닫겠습니다.**

내년[2026년]에는, 노숙자였던 시애틀과 킹 카운티 주민들이 2021년부터 거주하던 1,300곳의 긴급 주택에 대한 바우처 사업이 더 이상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이며, 지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이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중단한다면, 대다수가 다시 노숙자가 될 것입니다. 시애틀 시민들이 실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의 바우처 예산이 끊긴 만큼 시정부가 주거 보조금 제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또한 전례 없는 압박에 직면한, 감당할만한 가격대의 주택 부문을 다시 안정시켜야 합니다. 저소득층과 정부 지원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너무 많은 이들이 임대료 부채나 행동 건강 문제로 인해 쫓겨나고 있으며, 이들은 다시 노숙자가 되고 있습니다.

주택 비영리 단체들은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며, 일부는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건물을 매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감당할만한 가격대 주택 재고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합니다. 저는 한편으로 퇴거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 부문이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주택 안정 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감당할만한 가격대 주택 공급업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력하는 ‘퇴거 방지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 공급업체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노숙자를 가두는 회전문을 닫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2) 감당할만하고 풍부한 주택

- **사회주택 부문과 협력해 시민들이 주거비를 감당할 만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시애틀 유권자들은 두 차례나 주민투표를 통해 사회주택 건설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브루스 해럴은 이런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의 주민투표를 통해, 시정부가 다양한 소득 범위의 사람들과 가족을 위해 임대료가 영구적으로 감당할만한 수준인 공공 소유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임이 확인됐습니다.

제가 시장이 된다면 새로운 ‘시애틀 사회주택 개발자’와 협력할 것이며 기술과 설비

를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성장 중인 계층혼합형 사회주택 부문은 시민들이 충분히 비용을 감당할 만한 주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업형 임대업자와 경쟁함으로써 도시 전체의 임대료를 낮추는 효과를 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10억 달러의 지방채를 발행해 감당할만한 가격대의 주택(노동조합원이 건설한)을 공급하겠습니다.

점진적 진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애틀을 운영하는 사람들, 즉 청소부, 식품점 직원, 바리스타, 차량 공유 운전자, 호텔 직원, 경비원, 사회복지사 등이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려면, 과감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킹 카운티는 현재 수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와 사회주택을 창출하기 위해 1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애틀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정부는 새로운 사회주택 개발자와 협력하는 것 외에도 업체를 가속화하는 것 외에도 커뮤니티 토지 신탁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주 위험이 높은 지역사회에 감당할만한 가격대에 구입할 수 있는 주택과 임대주택을 공급할 기회를 창출하겠습니다.

- 악질 임대인을 단속하고 임차 가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시애틀 전체 가구의 56%가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으며, 그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정성과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굳이 주택 소유자가 될 필요가 없게 만들겠습니다.

현재 너무 많은 기업형 임대업자들이 주택 시장을 악용하여 부당한 비용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브루스 해럴은 이에 대해 무언가 조치를 취하는 대신 집주인들과 담합해 기존의 보호 장치마저 약화시켰습니다.

시장이 되면 저는 임차 가구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주인들의 숨은 비용 청구나 기만적인 관행, 가격 담합 등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5% 이상의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시애틀의 '경제적 이주 지원법'을 강화하겠습니다. 사모펀드의 주택 구매를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 상원 법안 5496을 지역 차원에서 추진하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강력한 '노동기준청'을 모델로 삼은 임차인 권리 보호 부서를 신설하겠습니다.

- 사람들이 쉽게 집을 임대하고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사회를 짊어주는 이주로부터 보호하고 녹색 시애틀을 지키겠습니다.

생활비 상승 위기의 주된 원인은 주택 공급이 인구 증가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

니다. 대중교통, 공원, 학교, 식료품점, 소규모 사업장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바람직한 동네를 건설하기 위해 주택 공급의 장벽을 제거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브루스 해럴은 현상 유지를 위해 애초의 주택 확대 계획 초안을 약화시켰습니다. 저는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관료주의적 장애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또한 포용적인 동네를 건설하고, 특히 대중교통 근처에 위치하며 노인, 장애인, 젊은이에게 도움을 주는 주거 유형을 장려할 것입니다. 동시에, 저는 오래된 지역 공동체와 이민자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잦은 이주의 위험에 맞서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펼칠 것입니다.

개발을 둘러싼 논쟁에서 주택 밀도와 나무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둘 다 가질 수 있으며,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해 더 극심한 더위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둘 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공유 벽, 연립형 주택, 일조 요건 개선, 수목 보존 등을 통해 더 많은 나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무 그늘이 불충분한 저소득층 지역에 새로운 나무를 심고 돌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둘러보며 새로운 개발이 추악한 건물을 낳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토지이용법의 한계와 문제 탓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선택을 통해, 도시 전체에 흥미롭고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내는 인간적 주거 밀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3) 트럼프로부터 안전한 시애틀

- 연방 정부의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누진 과세를 통해 필수 서비스를 유지하겠습니다.

시애틀은 교통, 주거, 의료 지원, 공공 안전, 노인 서비스 등의 용도로 매년 약 1억 5천만 달러의 연방 예산을 교부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SNAP 식량 지원[저소득층 식료품 구입 지원 프로그램], 메디케이드 및 기타 연방 프로그램의 예산 삭감안은 시애틀 시민들에게 타격을 입힐 것이고, 이로 인해 감축된 원조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지방정부가 메꾸라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입니다.

시정부는 도서관과 공원에서부터 쉼터와 공공 안전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누진 과세를 도입해야 합니다.

- 이민자와 난민을 연방정부의 공격과 대량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시정부는 ICE가 문 앞에 들이닥쳤을 때 고용주, 기관, 대중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교육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시애틀 시정부 내의 ‘이민-난민 문제국’이 강화되고 있지만, 여기에 시장의 리더십이 더해지면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민자 지역공동체 조직과 협력하여 위험에 처한 사람들과 구금된 사람들을 위한 법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시 검찰청과 협력하여 시애틀 주민과 지역사회에 해로운 불법 조치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시의 데이터 수집 및 저장 관행을 재검토하여 연방 이민 기관이 마음대로 데이터를 공유할 위험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시애틀 경찰서가 Keep Washington Working Act[워싱턴 주에서 주경찰이 ICE의 이민자 단속에 동참하지 못하게 규정한 법]를 준수함으로써 ICE의 무차별적 위협과 체포에 협조하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 성소수자 공동체와 재생산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시애틀은 계속해서 극우 및 근본주의 단체들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시장이 되면 저는 LGBTQ 공동체 리더 및 그룹과 긴밀히 협력하여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는 전략을 마련할 것입니다.

각 구의 교육 당국과 협력하여 시애틀의 포용성과 다양성을 위협하는 연방정부의 요구에 맞서겠습니다.

시애틀 주민들이 생식 의료 및 성 정체성 확인 의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보장하고, 이런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 취약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감시 및 데이터 보안 정책과 관행을 재검토하겠습니다.

ICE가 시민들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한, 시애틀은 안전한 도시일 수 없습니다. 또한 시정부는 임신 중지 서비스와 성 정체성 확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 워싱턴 주를 방문하는 개인의 데이터 보호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SPD[통계정책지침]의 ‘범죄 예방 기술 파일럿’을 재검토하여 취약 계층에 끼칠 영향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새로운 데이터 관련 기술이 특히 연방 행정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공동체에 끼칠 영향을 고려하고 새 기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의 감시 조례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4) 교통과 이동성

- **안전하게 걷고, 자전거 타고,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습니다.**

우선 가장 위험한 도로를 사람 중심 거리로 바꾸겠습니다. 훌륭한 대중교통, 안전한 동네, 번창하는 가게, 수목 캐노피 등을 갖춘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거리는 대기를 정화하고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를 낼 것입니다.

새로운 보도를 건설하고, 거리와 다리를 수리하며,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자전거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해 Keep Seattle Moving Levy[시애틀 시의 도로환경개선 기금]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시애틀 자전거 마스터 플랜’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구간부터 신속하게 안전을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이나 주민들이 요청한 경우, 자전거 주차 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교통 인프라 개선에도 지방채 발행을 활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습니다.

- **세계적 수준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애틀 시민들은 런던에서 싱가포르, 멕시코시티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빠르고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며 신뢰할 수 있고 이용료가 감당할만한 수준인 저렴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더 나은 리더십을 통해 이 목표를 보다 빨리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ound Transit[시애틀 대중교통기관] 이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시정부 권한을 활용하여 Sound Transit 경전철 건설 프로젝트가 신속히 추진되게 만들겠습니다. (반면에 브루스 해럴은 경전철 역을 원래 계획보다 세 블록이나 옮겨 달라는 아마존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자원을 낭비하고 경전철 완공을 지연시켰습니다.)

킹 카운티와 협력하여 지역 버스 서비스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전용 버스 차선을 운영하고 버스에게 교통신호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버스 대중교통이 개인 승용차에 대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만들겠습니다.

- **감당할만한 이용료로 대중교통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버스 부스와 대기자용 벤치를 더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편의 시설이 없으면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30% 더 길게 느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중교통 기관 및 운수노동자 노동조합과 협력하여 대중교통을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개선하겠습니다.

시애틀 주택청이 발행하는 교통 패스 프로그램의 대상을 공공주택 외의 다른 주택 형태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확대하겠습니다.

킹 카운티, 대중교통 기관 및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력하여 시애틀 시의 대중교통 이용료 인하 내지는 무상 이용 프로그램을 불편 없이 광역 수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 도로는 더 많은 승용차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동 양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식료품점 직원, 교육자, 호텔 직원, 청소부, 바리스타 등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고용주가 직원에게 교통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팬데믹 이후 현실에 맞게 ‘출퇴근 시간 줄이기’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고 확장하겠습니다. 이미 상당한 성과를 낸, 직장의 비표준 근무시간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주차장 요금 현실화 정책을 통해 고용주가 직원에게 굳이 개인 승용차 사용을 권장하지 않게 만들겠습니다. 2020년에 통과된 워싱턴 D.C.의 ‘교통 혜택 형평법’에 따르면, 20명 이상의 직원에게 무료 주차나 주차 보조금을 제공하는 고용주는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개인 승용차를 사용하지 않는 직원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근 성공을 거둔 뉴욕시의 혼잡지역 통행료 정책을 주목할 만합니다. 시애틀은 혼잡지역 통행료 도입을 통해 대중교통을 확대하고 개선할 자금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이동 시간, 소음, 오염, 천식 발생률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도시로 출퇴근해야 하는 저소득 주민들과 저임금 근로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혼잡지역 통행료 정책을 도입하겠습니다.

워싱턴 주의 전기 자전거 장려 프로그램은 큰 인기를 끌었고 이용 신청자 수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기 자전거 이용을 통해 자동차 여행과 자동차 소유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애틀 역시 자체 장려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합니다.

5) 공공 안전

- 시정부가 폭력 예방 및 대응에서 혁혁한 성과를 내도록 만들겠습니다.

시에서 이미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재검토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며,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청소년 범죄를 줄이는 것으로 입증된 견습 및 직무 교육 프로그램, 지역공동체 기반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총기 폭력 실태를 검토하고, 공중 보건 기관, 정부 파트너 및 지역공동체 이해관계

자들과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협력하여 총기 폭력 예방을 위한 포괄적 접근법을 취하겠습니다.

총기, 탄약 구매량을 제한하고 총기 소유자의 무기 보관 방식을 규정하는 총기 소유 및 사용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차량에 의한 보행자 피해가 증가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가로 조명과 시야를 개선하는 등 공공 인프라에 투자하겠습니다.

- 이미 성과를 입증한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약물 남용 문제지역을 해결하겠습니다.

경찰 수사 자원은 폭력 범죄에 집중하고, 생활 상의 공공 질서 문제는 LEAD[Law Enforcement Assisted Diversion. 경미한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을 체포하는 대신 지역사회 기반의 재활 및 지원 서비스로 연결하여 형사사법시스템의 개입을 줄이는 선도 프로그램. 시애틀에서 시작됐다] 방식에 따라 경찰이 아닌 사건 관리자들 case managers을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낮은 수준의 약물 관련 및 약물 유발 범죄에 대한 대응을 치료, 쉼터 및 지속적인 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추진하여 교도소를 통한 노숙자 및 약물 사용의 회전문을 닫겠습니다.

6) 노동자 가족을 위한 도시

-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확대하겠습니다.

약 9만 명의 시애틀 노동자에게 4,200만 달러 이상의 도난당한 임금을 되돌려주고 직장 내 권리 침해를 시정한 노동기준국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시애틀의 노동 기준을 시행한다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에 투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작년에 해럴 시장이 제출한 예산은 이 성공적인 공직 수행을 방해했습니다.

시애틀의 성공적인 ‘유급 병가 및 안전 시간법’을 확대하여 저임금 노동자들이 특히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여름철에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모든 시애틀 노동자에게 ‘정당한 해고 사유’ 기준이 적용되게 하겠습니다. 2021년, 뉴욕시는 패스트푸드 고용주가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보호관찰 기간 이외에는 직원을 해고하거나 근무 시간을 대폭 단축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뉴욕시의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안전 일자리법’도 제안되었습니다. 시애틀의 PayUp 조례는 앱 기반 배달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며, 이미 지역적 차원에서 ‘정당한 해고 사유’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고용주의 노동자 교통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이미 대부분의 고임금 노동자가 누리고 있는 혜택으로, 식료품점 직원, 스타벅스 바리스타, 교육자, 청소부, 호텔 직원도 이 혜택을 누리면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동시에 노동자 가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규모 기업들이 직원에게 건강보험 등의 복지를 보장하면 세금 감면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다.

시애틀의 노동자와 노동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 예산을 투입하여 ‘챔피언 노동조합 견습’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 젊은 가족들이 시애틀을 떠나게 만드는 주거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주택 위기로 인해 현재 도시를 떠나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해 가족 단위의 임대주택 혹은 감당할만한 비용의 자가를 풍부하게 공급하는 전략을 강구해야 합니다.

- 보육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보육 비용을 감당할만한 수준으로 낮추겠습니다.

감당할만한 비용의 보편적 아동 돌봄 체계를 확립하고 보육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주 차원의 보육 개혁운동, 노동운동과 협력하겠습니다.

구역 설정 및 규제 요건을 명확히 하고 간소화하여 시애틀에 보육 시설을 보다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일하는 부모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모든 대형 신축 사무실 및 주거 건물에 보육 시설이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시 예산이 투입된 주거에 대해 보육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 공원에서 학교, 공중화장실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이 커나가기 좋은 시애틀을 만들겠습니다.

훌륭한 공원에 투자하고, 도시 전역의 동네에 아이들이 놀고 가족들이 방문할 수 있는 더 안전하고 차 없는 공공장소를 조성하겠습니다.

공립학교들과 협력하여 예술 및 문화 프로그램, 학생 정신 건강, 폭력 예방 및 학생 안전에 더 많은 자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도시 전역의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공중화장실을 개설하겠습니다. 이러한 공중화장실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담당 인원을 추가로 배치하겠습니다.

7) 기후 행동과 환경 정의

- 주민과 노동자를 열, 연기 및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모든 가정은 어디에 살든 소득이 얼마든 깨끗한 공기와 냉방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냉난방 장치 전환을 가속화함으로써 시애틀 전역의 가정과 직장에 깨끗한 공기와 냉방을 제공하는 동시에 화석 연료에서 전환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시애틀은 도시 소유의 커뮤니티센터를 기후 회복력 허브로 전환하기 시작했지만,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시정부는 지역공동체 기반 조직이 커뮤니티센터와 문화 센터에서 재생에너지와 기후 회복력을 향상시키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구역 설정 정책은 많은 경우, 숲 만들기과 감당할만한 주택 공급을 서로 대립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시애틀에는 숲도 필요하고, 주택도 필요합니다. 주택을 풍부하게 공급하면서 동시에 나무들이 만드는 캐노피가 도시 곳곳에서 번창하게 만드는 종합계획을 하루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시장이 되면 저는 도시 전역, 특히 오염과 기후 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의 지역공동체 단체들과 협력하고 이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들은 더 나은 건강, 환경 정의, 기후 회복력, 그리고 생태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기후 오염의 가장 큰 원인인 교통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후 오염을 신속히 줄여 나가겠습니다.

대중교통, 자전거, 걷기를 통한 이동이 훨씬 더 쉽고 안전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시애틀의 탄소 오염의 대부분은 교통수단에서 발생합니다. 배출량을 줄려면,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이동하는 방식(이동 양식)을 바꿔야 하며, 이동해야 하는 거리와 빈도를 줄여야 합니다.

감당할만한 주택을 풍부히 건설하고 이사 갈 이유를 줄이는 것은 중요한 기후 전략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집 근처에서 일하고 쇼핑하며 사교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동 거리가 줄면, 개인 승용차를 운전하는 대신 걷기, 자전거 타기,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시청 주변을 시애틀의 첫 번째 '슈퍼블록'(탄소 배출과 차량 이용이 적은 구역)으로 지정하겠습니다.

- 좋은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청정에너지를 위해 도시를 업그레이드하든, 나무를 심든, 버스 노선을 건설하든, 기후 투자는 모두에게 적합한 친환경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일대 기회입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시애틀 주민들을 위해 수백 개의 녹색 일자리(노동조합이 보장된)를 창

출하기 위해 견습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에 공공 자금을 투자할 것입니다.

원하는 모든 가정과 사업체에 시 소유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재산세 추가 부담 없이 깨끗한 태양광 에너지를 전력망에 다시 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담대한 해법입니다.

8) 경제 발전과 동네 활성화

- 시애틀 전역의 도심과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도심을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일하고 쇼핑하고 사교하는 장소로 만들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주택으로의 전환, 사회주택, 공공 공간 활성화, 지속적인 안전 문제 해결, 그리고 예술 및 문화 공동체와의 협력 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의 시작 및 확장을 위한 허가, 용도 변경 요건 및 기타 장애물과 같은 규제 장벽을 줄임으로써 상업 지구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

잘 설계된 공실세나 과태료를 통해 빈 상업 공간을 채우도록 장려하고, 상가 부동산 소유자들이 1층 소매 공간을 잘 활용하도록 장려하겠습니다.

- 소규모, 지역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시애틀 종합계획 초안은 문자 그대로 모퉁이에 있는 상점만 합법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저는 모든 동네의 커피숍과 작은 매점을 합법화할 것입니다. 카페, 편의점, 예술품 및 공예품을 판매하는 상점, 그리고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게는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공 안전을 개선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회복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데 드는 비용과 관료적 절차를 최소화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여러 기관을 돌아다니며 인가를 받거나 등록하기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이러한 복잡성은 지역 기업가들보다 금융자본을 지닌 부자들과 외부 투자자들만 이롭게 만듭니다.

공공 개발 기관 및/또는 지역 대출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저금리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겠습니다.

‘상점 수리 기금’을 재가동하고 확장하여 재산 피해를 입은 소규모 사업체가 시에 수리 비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대비 저축이나 건강보험 같은 혜택을 제공하려 하는 중소기업을 시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지원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도시 경관을 변화시켜 활기찬 사람 중심의 공공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도시 전역의 인구 밀집지에 사람들과 가족들이 두려움 없이 방문하고 쇼핑하고 놀고 어울릴 수 있는, 자동차가 없고 경량 운송수단만 다니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시청 주변에 '슈퍼블록' 구역을 시범 운영하여 자동차를 분산시키고 인도를 활성화하며 노점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도시 전역의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공중화장실을 개설하겠습니다.

- 시애틀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멋진 2026 FIFA 월드컵을 개최하겠습니다.

2026 월드컵은 행사기간 동안만 값비싼 일시적인 개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도심 공공장소와 대중교통을 영구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시장이 되면 저는 시애틀이 깨끗한 거리뿐만 아니라 선한 가치를 보여줄 수 있도록 현재 도심에서 노숙 중인 사람들을 위한 쉼터와 서비스를 확대할 것입니다. 이 작업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브루스 해럴은 2023년 MLB 올스타전과 마찬가지로 행사기간 동안 사람들을 구석진 곳으로 쓸어버릴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애틀 시민들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입장료가 감당할만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9) 누진 과세

- 필수 서비스를 지키기 위해 누진 과세를 확대하겠습니다.

시애틀은 가장 부유한 가구로부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워싱턴주 자본이득세를 보완하는 시애틀 차원의 자본이득세를 채택해야 합니다.

또한 JumpStart[고연봉자를 대상으로 한 시애틀의 특별 소득세. 시영 서비스 재정 확보와 노숙자 대책 등에만 전용하게 되어 있는 목적세다] 및 기타 메커니즘을 통해 가장 부유한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세입을 확보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동시에 아마존과 같은 일부 고용주가 일부 고연봉 직책을 도시 밖으로 이전하여 조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주 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주 전역의 JumpStart를 워싱턴 주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단, 시애틀에서 JumpStart를 이미 납부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실시하여 형평을 맞추고 일자리 이동을 막겠습니다.

- 재산세를 개혁하겠습니다.

우리의 재산세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워싱턴주법 탓에 물가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구조적인 예산 부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워싱턴주법 때문에 저소득층 및 중산층 주택 소유자에게 가장 큰 부담을 줍니다. 이 문제를 교정해야만 합니다.

저는 주 의원들과 협력하여 재산세의 누진성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및 중산층 주택 소유자에 대한 공제 및 면제를 신설할 것입니다.

동시에, 저는 주 의원들과 협력하여 우리 지역 재산세 수입이 물가상승과 인구 증가에 발맞출 수 있도록 1% 상한선을 해제할 것입니다.

저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무형 자산에 대한 워싱턴주 차원의 과세를 지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리더십 아래 시애틀은 재산세의 대안으로 토지 가치세를 선전하는데 동참할 것입니다.

- 유망한 누진 과세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입법하겠습니다.

공실세는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투기적 투자로 비워두는 대신 주거용 또는 상업용으로 임대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저렴한 주택 소유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전문 서비스에 대한 소비세는 많은 서비스를 과세 대상에서 누락시키고 있는 판매세의 허점을 보완하면서 상당한 추가 세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배관공을 고용하면 판매세를 납부하지만, 변호사를 고용하면 판매세를 내지 않습니다.

지역 부동산세를 신설해 워싱턴주에 이미 존재하는 누진적 부동산세와 병행한다면, 지역의 추가 세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광고세를 도입한다면 정신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소셜 미디어 회사로부터 세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 랜덜 레이, L. 2017. 『균형재정론은 틀렸다: 화폐의 비밀과 현대화폐이론』. 홍기빈 옮김. 책담.
- 랜덜 레이, L. 2025. 『돌봄 사회 건설을 위한 통화시스템: 현대화폐이론의 통화정책론』. 전용복 옮김. 진인진.
- 로빈슨, 네이션. 2021. 『밀레니얼 사회주의 선언: 역사상 가장 똑똑하고 가난한 세대의 좌회전』. 안규남 옮김. 동녘.
- 립시츠, 레이나. 2023. 『미국이 불타오른다: 세상을 바꾸고 정치를 뒤흔드는 미국의 젊은 진보』. 권채령 옮김. 롤리코스터.
- 샌더스, 버니. 2015. 『버니 샌더스의 정치 혁명: 버니 샌더스 공식 정치 자서전』. 홍지수 옮김. 원더박스.
- 쿠트, 안나 · 퍼시, 앤드루. 2021. 『기본소득을 넘어 보편적 기본서비스로!』. 김은경 옮김. 클라우드나인.
- 해링턴, 마이클. 2014. 『오래된 희망, 사회주의』, 김경락 옮김, 메디치미디어.
- Goldberg, Gordon, J. 2013. *Meyer London: A Biography of the Socialist New York Congressman, 1871-1926*. McFarland & Company.
- Meyer, Gerald. 1989. *Vito Marcantonio : Radical Politician 1902-1954*.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Stromquist, Shelton. 2023. *Claiming the City : A Global History of Workers' Fight for Municipal Socialism*. Verso.
- 《*Boston Review*》 : <https://www.bostonreview.net/>
- 《*Dissent*》 : <https://dissentmagazine.org/>
- 《*In These Times*》 : <https://inthesetimes.com/>
- 《*Jacobin*》 : <https://jacobin.com/>
- 《*The Nation*》 : <https://www.thenation.com/>
-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DSA) 홈페이지 : <https://www.dsausa.org/>
- 조란 맘다니 선거운동 홈페이지 : <https://www.transition2025.com/>
- 케이틸 윌슨 선거운동 홈페이지 : <https://www.wilsonforseattle.com/>